

# 단통법 개정안... 이통사 옮기고, 번호이동해야 '최대 혜택'

추가 쿠폰 등 '전환지원금' 신설  
번호이동 가입자 최대 50만원 혜택  
단말기 불필요한 교체수요 발생 우려  
고가 요금제 중심 지원 집중 가능성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번호이동 가입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통사를 이동하지 않는 가입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교체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공시지원금 이외에 제공하는 추가 혜택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면 이통사를



지난 1월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옮기는 번호이동 고객은 단말기 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위약금이나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추가 쿠폰 등을 포함한 전환지원금이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공시지원금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던 공시지원금 내용과 관련된 정보 변경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통사를 이동하고 싶지 않은 고객에 대한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불필요한 이통사 전환과 교체 수요를 자극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특히 전환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단기간에 번호를 여러 번 갈아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번호이동 제한 기간인 3개월만 지나면 전환지원금이 지급돼 무마할 수 있기 때문. 또한 이통사간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고가 요금제에 가입자에만 지원이 쏠릴 수 있다. 이밖에도 알뜰폰 시장이 위축되

면서 대표 저가 요금제인 '0 요금제'도 사라지고 있다. 이통사가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알뜰폰에 대한 '사업자 보조금'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알뜰폰요금제 비교 사이트 '알뜰폰 hub'에 따르면 이날 기준 '0원 요금제'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관련 요금제는 80여 종에 달했지만 올 초부터는 아예 사라진 셈이다.

이와 관련 신속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전환지원금 관련) 고시를 오는 13일 방통위에서 의결하고 1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인데, 현장 얘기를 귀담아듣고 정책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사 3사 대표들이 만나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논의한다. 11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과 회동한다.

김 위원장과 이통3사 대표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LGU+

### 유심 원칩, 플라스틱 줄인다

LG유플러스가 공용 유심 '원칩'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절반으로 줄이고 안내문과 배송봉투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하며 고객과 함께 ESG 경영 실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유심은 스마트폰에 끼워 쓰는 일종의 IC카드로, 가입자 식별 정보를 탑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021년 U+망을 사용하는 40여개 알뜰폰 사업자 요금제는 물론,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닷컴'의 다이렉트 요금제, 통신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너겟'의 요금제를 개통할 수 있는 공용 유심을 선보였다. 편의성으로 원칩 판매량은 2022년 9만 4600여건에서 2023년 28만여건으로 1년 만에 약 3배 증가했다.

원칩 판매량의 증가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원칩의 유심 플레이트를 절반으로 줄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낮췄다. 원칩 이용 안내문과 배송 봉투도 친환경 FSC 인증을 받은 소재로 변경했다. FSC 인증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과 지구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국제산림관리협회에서 만든 국제 인증 제도다.

/구남영 기자

## 팀네이버, 클라우드·AI 사업화 박차

### HD현대와 디지털 전화 박차

#### 조선·해운 영역 신사업 기회 발굴

팀네이버와 HD현대 머리를 맞대고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팀네이버는 HD현대와 세종시에 위치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에서 '클라우드 전환 및 AI 사업화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HD현대의 클라우드 전환 및 네이버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활용 지원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HD현대마린솔루션의 해양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사업 추

진 등을 공동 진행한다.

먼저 네이버는 HD현대가 보유한 조선·해양 분야 데이터베이스(DB)에 네이버의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를 적용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조선·해운 영역에서의 다양한 신사업 기회도 발굴할 계획으로,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선·해운 영역에 클라우드·AI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양사는 전 세계 선박 운항 데이터를 수집해 선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 종합 데이터 플랫

폼인 '메타오션데이터 클라우드'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해 기술검증까지 완료했으며 올 상반기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양사는 조선·해운 분야에 클라우드와 AI 기술을 활용한 '메타오션데이터 클라우드'를 출시하는 등 다양한 신사업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선박 탄소집약도(CII) 관리부터 항해 중인 선박들의 운영·관리 전반을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하고, 솔루션과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HD현대마린솔루션의 선박 및 엔진 A/S 관련 고객 문의 및 응대를 위한



(왼쪽부터) 김정희 HD현대마린솔루션 경영지원부 상무,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11일 세종시 데이터센터에서 클라우드 전환 및 AI 사업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네이버

AI 챗봇 개발에도 네이버의 AI 기술을 활용, 보다 상세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oseoul.co.kr

## LG전자

### TV 스피커 동시 활용 AI 사운드바 사전예약

LG전자가 11일부터 20일까지 인공지능(AI) 탑재 2024년형 LG 사운드바 사전예약을 받는다. 국내 온라인브랜드샵을 통해 사전 예약을 통해 최상위 모델인 'S95TR'을 구매한 고객 100명에게는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공식 출시는 이달 말 북미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출시한 2024년형 LG 사운드바 신제품은 LG 사운드바 신제품은 사운드바와 TV 스피커 동시 활용하는 와우캐스트(WOWCAST) 기능을 담았다. AI를 기반으로 시청 위치, 공간 구조, 콘텐츠 장르 등을 고려해 정교한 입체 음향도 제공한다.

대표 모델인 'S95TR'은 세계 최초로 업파이어링(Up-firing) 스피커 3개를 탑재한 본체를 포함해 ▲저음을 내는 '서브우퍼' ▲입체음향을 내는 '리어 스피커' 등 총 5개의 채널(9.1.5)을 지원한다. 최대 출력은 810와트(W)다.

/김서현 기자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풍부한 입체 사운드는 물론, 프리미엄 LG TV에 기능과 디자인을 꼭 맞춘 2024년형 LG 사운드바를 출시한다. 사진은 LG 사운드바 중 최대 채널(9.1.5)을 지원하는 'S95TR'. /LG전자

## K-배터리, 기술개발 핵심 과제 '고성능·저가격·고안전'

전기차 배터리 혁신 기술 세미나  
배터리 제어·안전 기술 등 주제

국제적 환경 규제 강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로써 전기차는 필수적인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차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배터리 기술 개발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서 주행거리부터 화재로부터 안전성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배터리 관련 기술 개발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한국미래기술교육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배터리 2024' 행사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혁신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배터리 산업 전망 및 핵심 소재 개발 이슈, 배터리 제어 및 안전 기술 등을 주제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차전지PD는 "전기차가 나온 이유는 결국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때문에 배터리 산업 혁신 전략 3가지 중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나 소재를 만드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감축,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부

산물이나 폐기물들을 줄이는 것이 미래 글로벌 배터리 이슈의 키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사용기한이 만료된 폐배터리 처리도 중요한 이슈다. 산업부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해 배터리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를 2030년까지 25%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차전지 소재업체들이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송정훈 포스코홀딩스미래기술연구원 박사는 이차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해 에너지밀도와 주행거리를 늘리고 충전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송 박사는 "에너지밀도는 2023년 250~300Wh/kg에서 2030년 350Wh/kg으로 높여야 한다"라며 "주행거리는 500km에서 600km로 늘리고, 충전속도는 20분 이내에서 15분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안전과 관련해 해선 이차전지 모듈, 지능형 제어기술 확보를 통해 발화 지연을 넘어 자가진단과 자가치유가 가능한 이차전지 제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둘러싼 화재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홍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용인소방서 소방위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폭발"이라며 "현재 국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폭발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안전성 문제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차현정 기자 hyeon@